

■ 해수욕장 개장 첫 날 / 피서객 코로나19 방역수칙 지키나 봤더니...

노마스크족 '복적'... 거리두기도 '실종'

모래사장 밟는 순간
썼던 마스크 벗어던져
피서객 "거리두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제주시내 주요 지정 해수욕장이 개장 첫날부터 몰려드는 인파에 복적이었다. 가족 단위는 물론 친구들과 여행은 관광객까지 한데 모여 무더위 속 해수욕을 즐겼다. 하지만 상당수 방문객이 2m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방역에 대한 걱정을 키웠다.

1일 낮 12시 제주시 한림읍 협재 해수욕장 주차장이 관광객들이 타고 온 렌터카로 가득찼다. 해수욕장 주변 상권은 쏟아진 인파에 모처럼만에 활력이 들었다.

그러나 무더운 날씨 속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급세 실종됐다. 대다수 방문객이 해수욕장 입구에 도착할 때까지도 해도 썼던 마스크를 모래사장에 들어서자 벗어던지기 시작했다. 턱 아래로 걸쳐 쓴 사람도 여럿 보였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물 밖에선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대구에서 친구들과 함께 제주로 여행을 왔다는 이상민(25)씨는 "실내수영장도 아니고 야외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스크가 굳이 필요할 것 같진 않다"며 "물놀이를 하면 온 몸이 다 젖는데,



협재해수욕장 등 제주지역 해수욕장이 1일 일제히 개장했다. 개장 첫날 많은 피서객이 해수욕장을 찾았지만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마스크를 계속 쓰라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해수욕장 입구에 적힌 '사회적 거리 두기' 안내 문구가 무색하게 방문객 대다수가 무리 지어 다녔다.

가족과 함께 여름휴가를 즐기러 왔다는 문모(66)씨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다른 곳은 갈 수 없어서 제주로 왔다. 해수욕장은 야외 시설이라 방역지침이 있는 줄 몰랐다"며 "온 가족이 모처럼만에 놀러왔는데 어떻게 거리를 두느냐"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일하게 파라솔만 지키고 있다. 제주도는 파라솔을 2m 간격으로 벌려 설치하라고 권

고했다.

방역 대응에서도 아쉬움을 남겼다. 샤워시설·탈의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문 일지, 손소독제 등을 비치한 뒤 방문객을 상대로 발열 검사를 해야하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탈의 시설 직원은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다"면서 "조만간 소독제를 비치하고 발열 검사도 하겠다"고 말했다.

해수욕장 종합상황실 옆엔 코로나19 유증상자를 격리하기 위한 천막이 설치됐다. 협재해수욕장 종합관리실 근무를 맡은 문정용 한림읍 소득지원팀장은 "방역수칙을 지켜달라는 안내방송을 실시할 예정으로 화장실·탈의실·샤워시설·파라솔에 대

한 방역은 1일 2회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인원을 파악하고 완벽하게 통제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스스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성숙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상인들은 몰려든 방문객들이 반가우면서도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불안한 마음이 앞선다. 협재해수욕장 인근 상인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해 반갑긴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많은 이들이 마스크 착용을 잊은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가족의 건강과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씻기 일상화... 안전한 음식물 섭취" 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예방수칙 준수 당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도내·외 유치원 등에서 집단 설사 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손씻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소고기는 충분히 익혀 먹는 등 안전한 음식물 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도에 따르면 제주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10일까지 총 8명의 장염 환자(원아 6명, 확진 원아가족 2명)가 발생했다.

또 지난 6월 18일에는 경기도 안산시 소재 유치원에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환자가 나왔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제대로 익히지 않은 소고기 또는 오염된 식품이나 물 등을 통해 감염된다. 감염 시 심한 경련성 복통, 오심, 구토, 미열 등과 설사가 동반되고 설사는 수양성에서 혈성 설사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증상은 5-7일 이내 대체로 호전되지만 용혈성요독증후군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손씻기 등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소고기는 충분히 익혀 먹는 등 안전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한다. 아울러 조리도구를 구분해 사용하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등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부당 전적 논란 지역농협 직원 4명 복귀

농협중앙회가 제주시 모 지역농협에서 노조 탄압과 부당 전적 의혹이 불거져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해당 사건과 관련된 직원 4명에 대한 복귀 결정이 내려졌다.

NH농협 제주시지부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등은 지난달 30일 NH농협 제주시지부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업무협의회에서 부당 전적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 4명에 대해 복귀를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농협 관계자는 "아직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해당 사건이 소송 중에 있고 또 노조 측이 해당 직원의 복귀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분부는 지난해 8월 한림농협 노조가 결성된 뒤 일부 노조원에 대한 강등 또는 불합리한 내부 인사발령으로 노조 탄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노조 임원진 등 4명이 다른 지역 농협으로 강제 전적 등 노조 탄압 행위가 이뤄졌다고 농협중앙회에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를 촉구한 바 있다.

노조 측은 "부당 전적된 직원들은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쫓겨난 직원'이라는 오명을 안고 살아왔다"며 "이번 복귀 결정이 부당 전적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인 만큼 해당 지역 농협은 노조할 권리 보장과 부당 전적으로 인한 피해회복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제주시 교량 절반 내진성능 '미흡'

2009년부터 내진설계 반영돼 이전 가설 122개 지진 취약
법 적용 이전 교량 내진보강해야지만 예산난에 갈 길 멀어

제주시 소재 200여개의 교량 가운데 절반은 내진성능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 설치된 교량에는 지진재해대책법(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설계를 반영하고 있지만 이전에 설치된 미 반영 교량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내진성능을 보강해야 하는데도 예산

난에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1일 제주시에 따르면 내진성능 기준을 적용받는 교량 243개 중 121개는 지진설계가 반영돼 있지만 나머지 122개는 내진성능을 갖추지 않고 있다. 121개 교량은 공공시설물에 내진설계를 반영토록 한 2009년 이후 설치된 교량들이다. 제주시에는 도

로법을 적용받는 243개 교량 외에 하천법을 적용받는 135개 교량(하천 시설물)이 더 있지만 내진설계는 국가하천 수문만 대상이어서 국가하천이 없는 제주는 대상이 아니다.

2009년 이전에 설치된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2013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내진보강계획을 수립해 보강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2014~2016년 14개 교량에 대해 내진성능평가용역을 의뢰

했고, 주의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힌 9곳을 제외한 5곳에는 내진성능보강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내진보강공사가 이뤄진 교량은 2018년 제2오라교와 최근 내진성능보강공사를 마친 병문천에 위치한 삼오교 두 곳 뿐이다. 삼오교는 지진에 버틸 수 있도록 교량 탄성반점 설치와 균열보수가 필요하다는 평가에 따라 지난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억원을 교부받아 올해 1~3월 실시계획을 수립 후 4~6월 내진성능보강공사를 마쳤다. 나머지 제3한천교와 제4한천교, 오현교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공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교총 "사망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해야"

제주특별자치도교육단체총연합회(이하 제주교총)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업 중 사망한 기간제 교사에 대해 산재 및 순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제주교총은 "지난달 30일 근로복지공단·공무원연금공단·인사혁신처에 '제주도 초등학교 기간제교사 수업 중 사망사건 관련 산재 및 순직 인정 요청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은 3·5·6학년 과학 수업을 동시에 맡아 대면·원격수업을 병행했으며, 긴급돌봄 운영과 발열체크 등 방역활동 업무까지 하는데

힘들어했다"며 "특히 마스크를 쓰고 수업하는 것이 많이 힘들다는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교총은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학생 교육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한 고인의 희생을 저버려서는 안된다"며 "당국은 조속히 산재 및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교총은 "건강이 좋지 않은 교원들에 대한 수업 경감, 재택근무, 병가 허용 등 적극적인 배려가 가능하도록 교육당국이 대체 인력풀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은범기자

축

취 임

제주시장

제주시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안 동 우

세인트포 골프 & 리조트

Halla (주)제이제이한라 대표 남규환 외 임직원 일동